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



박항서 베트남 감독

동남아 축구 한국인 감독 삼국지 피말리는 신경전 승자는 박항서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에서 펼쳐진 한국인 축구 지도자들 사이 치열한 신경전의 승자는 박항서(64) 감독이었다.

박항서 감독은 9일 베트남 하노이의 미단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미쓰비시컵 준결승 2차전에서 자신이 이끈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2-0으로 꺾자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울리자 박 감독은 선수들을 부둥켜 안고서 팔을 허공에 뻗으며 기쁨을 격하게 드러냈다.

박 감독은 4강에서 격돌한 신태용(53)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과 양보 없는 ‘장의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1차전을 득점 없이 비긴 후 박 감독은 “인도네시아도 좋은 팀이지만 우리가 더 강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신 감독은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이 더 강한데 왜 0-0으로 비겼느냐”고 반박했다.

두 감독은 5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악수를 하지 않아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6일 이에 대한 질의를 받은 신 감독은 “나는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박 감독님이 돌아서는 바

기자회견 설전에 악수 기피도 미쓰비시컵 준결승 몸싸움 격렬 베트남, 인니 2-0 꺾고 결승행 박 감독 라스트댄스서 우승 도전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이끌어

램에 나도 멈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 감독은 8일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거칠게 상대를 쓰러뜨리는 베트남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게시하며 또 한 번 신경전에 불을 지폈다.

신 감독은 이 영상과 함께 “주심과 선수는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사령탑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9일 준결승 2차전에 나선 양 팀 선수들은 그라운드 위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펼쳤다.

전반 34분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는 아스나위 망쿨람이 거친 태클로 왼쪽 측면에서 도안 반하우를 쓰러뜨렸다.

그러자 이를 눈앞에서 본 박 감독이 흥분을 참지 못하고 터치라인까지 뛰어가 심판에게 강하

게 항의하기도 했다.

4분 후 반하우는 반격한다는 듯이 경합 중 팔을 휘두르며 망쿨람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양 팀 선수들이 몰리며 거친 몸싸움과 신경전이 이어졌다.

후반 29분 코너리 상황에서 자리싸움 중 동반 선수들끼리 발싸움이 불자 황급히 달려간 주심이 연신 휘슬을 불며 경기를 정돈하려 애를 써야 했다.

이 같은 격전 끝에 1, 2차전 합계 0-2로 뒤진 인도네시아는 결국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셨다.

직전 2020 스즈키컵(현 미쓰비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인도네시아와 신 감독은 두 번째 도전에서도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에 합류한 이후 박 감독과 상대전적에서도 2무 2패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23세 이하(U-23) 대표팀 간 맞대결 전적까지 넣으면 2무 3패다.

반면 이 대회를 끝으로 베트남과 약 5년간의 동행을 마무리하는 박 감독은 ‘마지막 도전’에 나설 기회를 잡았다.

한편 호남대 출신인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따라 선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유빈의 힘찬 리턴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복식 16강전에서 한국의 전지희(왼쪽)와 신유빈이 인도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우기종 목포과학대 부총장

전남도체육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도체육회는 9일 전남도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 인수위원회는 송진호 회장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과 현안 분석과 업무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체육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우기종 위원장(목포과학대 부총장)을 비롯해 13명이 위촉됐다. △기획·홍보 △총무, 조

직, 민원소통 △대회운영 △체육지원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클럽 △전국종합체전 등 7개 세부분야로 구성됐다. 공약실천평가단 3명과 전남체육자문단으로 11명을 위촉했다.

송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일, 전선성 위주로 꾸렸다”면서 “각계 전문가이신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남체육인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더 나은 전남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임기는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 임기시작일 이후 20일까지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MG새마을금고 씨름단 창단...19개 팀 체제로

영암군씨름단 장성우·오창록 영입

약 7년 만에 탄생한 기업 씨름팀 MG새마을금고 씨름단이 10일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새마을금고 씨름단은 10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 회관 1층 MG홀에서 창단식을 열고 창단을 공식 발표했다.

중정남도를 영고로 하는 새마을금고는 2016년 현대삼호중공업이 운영하던 현대코끼리씨름단이 해체된 뒤로 약 7년 만에 생긴 기업팀이다. 새마을금고의 합류로 올해 남자 씨름은 19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8월 씨름단 창단을 공식화한 새마을금고는 장운호 감독과 김중진 코치를 초대 지도자로 선임했으며, 영암군민속씨름단에서 활약해 온 백두

장사(140kg 이하) 장성우, 한라장사(105kg 이하) 오창록 등 12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선수단 구성을 마친 새마을금고 씨름단은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영암군 영암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연간 10개 내외의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이날 창단식에는 새마을금고 관계자와 외빈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씨름단 CI(Corporate Identity) 공개, 선수단 소개, 선수단 결의문 전달 식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우리 민족 고유 스포츠인 씨름 저변 확대에 나서게 돼 의미가 깊다”며 “씨름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새마을금고가 한몫을 하겠다. 씨름 발전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컬링 '팀 김'·쇼트트랙 최민정 윤곡여성체육대상

한국 여자컬링을 이끄는 '팀 김'(강릉시청)과 쇼트트랙 여자 최민정(25·성남시청)이 제33회 윤곡김운용 여성체육대상을 받는다.

10일 대한컬링연맹에 따르면 팀 김과 최민정은 각각 단체,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팀 김은 2022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새 역사를 썼다.

앞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4강에 오르지 못했으나 예선에서 강팀 영국, 일본 등을 꺾는 저력을 과시했다.

개인 대상의 영예를 안은 최민정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올림픽 직후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선 4관왕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한편, 30년 넘게 동·하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통했던 '황연대 성

취상'의 주인공 황연대(85) 여사가 특별 공로상을 받는다.

황연대 성취상은 황 여사가 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 때 국내 언론으로부터 수상한 '오늘의 여성상' 상금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쾌척하면서 제정됐지만, 불안정한 재원 탓에 결국 2020 도쿄 패럴림픽 때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피겨 샹벨 신지아(15·영동중)는 5명의 신인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은 고(故) 김운용 전국체육대회위원회(IOC) 부위원장인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호 윤곡(允谷)을 따 제정한 상으로, 1989년부터 해마다 한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 체육인에게 수여해왔다. /연합뉴스



최민정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만도막의 바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아바타: 물의 길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영웅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아바타: 물의 길, 해시태그 시그네
4관	스위치
5관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6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7관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 없애줘!
8관	영웅, 스위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젠틀맨

2023 신년음악회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7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1-17(화)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